



성령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대사는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읽어요.

읽을 말씀

사도행전 19장 1-7절

외울 말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사도행전 19장 6절)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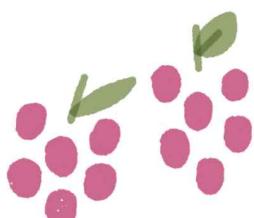
성령으로 충만한
기적의 현장으로 가요.

포인트 익히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에
기적과 부흥이 일어났음을 알고,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자.

적용활동

서프라이즈



...**2**바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3**바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면 여러분은 어떤 침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4**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외쳤는데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5**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6**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7**그 곳에 있던 사람은 열두 명쯤 되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세 번째 전도 여행의 중심 지역은 ‘에베소’라는 지역이에요. 그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12명을 만났어요. 바울은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라고 그들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님이 와 주셨어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어요.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더욱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을 통해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바울의 몸에 지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그들의 아픈 곳이 깨끗이 치료되고, 귀신이 쫓겨 나갔어요. 이런 기적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에 많아졌어요. 그리스도의 대사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는 곳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 이어지도록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요.



말씀을 탐구해요.

- 1) 사도 바울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행 19:6)
- 2)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나요? (행 19:11-12)
- 3) 다음 말씀에 빈칸을 채우고, 함께 외워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도 하고 □□도 하니”
(사도행전 19장 6절)